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價 一個月 八十錢 (地方은 先金) 六個月 四圓五十錢 一個年 八圓 [illegible]
廣告料 五號活字 每行 [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社說

小作團體運動의發達傾向

一

朝鮮小作人이 團體的運動을 開始하게된것은 實로最近數三年來에屬한現象이다 이와가티 發生한歷史가 短促함에不拘하고 組織分布된 量으로보아서 決코偶然한現象이아니다 土地를 生命으로하고 거긔에다 全生活根據를둔小作人은 土地를耕作하는權利에動搖가 생길때에 또는 土地生產物로써 自己의 生活을 保障하기어려운境遇에 거긔의 意思와行動이 土地耕作權과 土地生產物에 對한要求를對象으로하고 集中될것은 必然의歸結이다 그럼으로朝鮮에 小作人의團體的運動이 이러트跳躍的으로發達하게되는所以는 곳土地耕作權과 土地生產物의分配關係가 그만큼不安定또不合理하다는것을 實證하는것으로推斷하기不難한바이라 한다

二

그런데小作爭議를直接으로挑發하는動因은 上述한바土地耕作權의不安定 分配關係의不合理와如한根本的事實에着眼하고 이러나는것보다 오히려엇더한 補助的原因 즉不作이라든지災害라든지穀價의下落과如한條件이 重要한關係를가지게되는것이 通例이다 이것은어느나라를 勿論하고初期小作運動을誘發支配하는現象이다 엇지그러나하면 小作人은어느社會에서든지 大槪知識程度가 幼稚한까닭에 根本的原因에 着目하야團體的行動을取할만한 識見이缺乏할뿐아니라 假令거긔에서直接으로모든事態가胚胎하야 展開되는所以를 理解한다하드래도敢히그것을口實로하야爭議를이르킬만한 勇氣를엇지못하고些少한補助的原因에支配되는바不滿을부르지지게되나니 이것은前者보다後者가 主張하야貫徹될可能性이多한所以일것이다

三

이와가튼關係아래에 一旦誘致된小作人의團體的運動은 그社會의土地耕作權의動搖關係와生產物分配關係의如何에따러그發達의速度가決定되는것이다 朝鮮의小作團體의運動이 이러난以來現在團體의數가얼마되는지統計數字를가지지못한故로 그量或은質의如何를 擧論하기는不能하나 小作人이團體的으로地主에게 有利한小作條件을 獲要하는것을茶飯事로알게된氣分이 全朝鮮을風靡하게된것은掩蔽치못할事實이라할것이다 全人口의約七割이小作人인朝鮮에서小作團體運動이 燎原飛火의勢로 發達될것은미리企待하기에足한바이다

四

그러면 이와가티發達되고야말必然性을가진 小作團體의運動은 發達되여가는過程에잇서 如何한實質的 形式的要求를必要로하는가

朝鮮小作團體의運動은 아즉實質에잇서氣分的潮流가 放奔할따름이오 참된意味의鬪爭的執着味를 엇이지못하것다 이것은 運動의歷史가短促하고小作人自覺程度의 幼稚한것은勿論그運動을 指導操縱한다는先覺者亦是 實際事情에迂遠한觀念論으 一般社會問題와農村問題와의關係및農業經濟의特質과 小作運動指導上의 理論과의調和가不充分한所致라할것이다

元來小作人은移動性이적은만큼 團體的組織을鞏固히하기는 非常히容易하다 그러나그代身運動에熱이적고 또週期的發作的일뿐아니라 所謂改良을要할小作條件이라는것이 比較的單純한것이다 工業勞働者는一定한賃金에 自己의勞働力을팔고또繼續的으로不安이襲來하는것이나小作人은土地와直接結合이되야 勞働과經營이自由意思에依하야決定되는바이多하고一時的勝利는長期간어도 一農期동안되는 安定을意味하게되는故로 그만큼運動自體도微溫的이다 그리고 土地의地主小作人의關係는 企業에資本家 勞働者關係와如히接觸이頻煩치아니한까닭에溫情에讓柔되기쉬운傾向이잇다 그러면小作運動의指導者는모름이小作人自身들에게經濟的條件에對한見解와知識을注入하야 確乎한信念을가지게하는同時에 그運動의特質을根氣잇게把持하는忍耐와努力과識見이必要할가한다

軍縮招待近近發送

(「워싱톤」無電十六日發) 華盛頓軍縮會議에關한米國大統領「쿨릿지」氏의招待狀은未久에英佛及其他太平洋諸國에게發送되리라더라

英佛과軍縮會議

(巴里十六日發) 佛國總理「에리오」氏와英國外相「첨바렌」氏는 二時間에亘하야協議하엿는데協議後兩氏는記者團에게對하야英佛兩國은華府軍縮會議의招待를受치아니하엿다말하고更히「에리오」氏는「제네바」議定書는死滅하엿다信하지못하겟다斷言하엿더라 하야日議定書에依한方法이아닐로一切國際紛議를仲裁裁判에附하야解決할수잇는方法이오軍事協約은그보다効果가少할뿐아니라戰爭을誘起하기쉽다海外自治領도議定書를拒絕하지안한것이라斷言하엿더라

瑞典罷業 去益擴大

(「스독홀름」無電十六日發) 瑞典의同盟罷業은益益擴大하야「스토크홀름」市에서十三萬人이나되는職工이閉鎖逐出을當하게되엿더라

미란罷業終熄

(「쎌도」無電十六日發) 伊太利「미란」의金屬工業의諸大機業代表者와國粹派參事「가리스트」氏는罷業問題에關하야商議하엿는데그結果協調가成立되고그約果로罷業終熄의命令이發布되엿더라

佛國豫算減縮

(「쎌도」無電十六日發) 佛國上院財政委員會에서査定한結果佛國의豫算은十六億八千五百萬法이減縮되엿더라

佛法王廳大使 駐箚費削除

(「쎌도」無電十六日發) 佛國上院、財政委員會는國務總理「에리오」氏의說明을聽取한後十四票對十七票로써法王廳駐箚佛國大使館費中에서「알사스」「로렌」代表者에게用할豫算을削除하기로決定하엿더라

歷史는不可忘 波蘭外務長官談

(「쎌도」無電十六日發) 巴里의佛波協會晩餐會에서波蘭外務長官「스클진스키」氏는獨逸의保障條約締結提議에言及하야波蘭은獨逸을憎惡하지안코恐懼하지도안코나過去를忘하며歷史의敎訓을蔑視하고此에參加를顧할理는업스리라고述하엿더라

英의孤立政策은 矛盾이라고

(「쎌도」無電十六日發) 英國「모닝、포스트」紙는英國의孤立政策은矛盾的이라고論하엿스며一方에前首相이오勞働黨首領인「맥도날드」氏는「프렐」에서演說 [illegible]

聯盟理事會終會

(「쎌도」無電十六日發) 國際聯盟理事會는土曜日에會議를終了하엿는데最後의事務인國際聯盟理事會가希臘大僧正追放問題를審査할權限을有하엿는지그與否에關하야土耳其政府로부터提出된質議를國際仲裁裁判所에諮問할것을決定하고希臘政府도此決定을承諾하엿다又「라인」撤退地域管理問題는佛國의主張대로實行하기로決定되엿더라

治維法案委員會 朝鮮、臺灣에도適用

(東京電) 貴族院의治安維持法案委員會는十七日午前十時四十分에開會하고質議에入하야 伊東祐弘子、田健治郞男、岡喜七郞、湯地幸平、大井成元男諸氏로부터平凡한質問을하고山岡局長、小川法相의應酬가잇슨뒤零時四十分에散會하엿는데湯地幸平氏의質問에對하야山岡局長은臺灣、朝鮮等獨立運動은本法에依하야取締하게될것이라고答하엿더라

警官武器使用規定 十七日官報로公布

(東京電) 警察官吏武器使用規定이公布되엿는데左規定에依하면使用할境遇는左와如하더라

一、人의生命身體及는財產을防衛함에當하야狀況이窮迫하야武器를使用하는수밧게手段이無한境遇
二、職務上逮捕하는人、場所又는物件을支持함에當하야暴行을受하고又는受케되야狀況이窮迫하야武器使用의外에는此를排除할途가無한際
三、多衆이聯合하야暴行을하는時의自衛

普選委員會

(東京電) 貴族院普選委員會는十七日午前十時二十七分에開會하고坂本釧之助、內田嘉吉、花井卓藏三氏로부터質問이잇서此에對하야若槻內相及潮法制局長의答辯이잇섯고質問內容에는何等새로운것이업시質問三項이잇슨뒤으로零時十分에休憩가되엿더라

總督官制改正 閣議에서決定

(東京電) 十七日의臨時閣議에서左와如히決定하엿더라 朝鮮總督府官制中改正의件 右는朝鮮總督府의鐵道部를擴大로因하야局으로함이더라

正副議長脫籍

(東京電) 議場의秩序維持와嚴正公平한議事進行을圖하기爲하야以前부터問題가되엇던衆議院正副議長의黨籍離脫問題는畢竟十七日에此가實現하게되야粕谷議長은政友會를各黨籍을離脫하야無所屬으로入하엿더라

鐵豫附帶決議 研究會의案文

(東京電) 研究會가鐵道豫算案에附帶決議를提議할境遇의案文은大要가左와如하다

乙號繼續費豫算案에計上한大正十四年度以降의鐵道豫算은그財政方針은大綱此를是認하나그新規計劃의不合理杜撰한것은改訂을要望치안흘수업는故로大正十四年度에는同年度에提案할財源範圍內에서政府로하여금適宜히鐵道計劃을遂行식히기爲하야甲號豫算의大正十四年度鐵道豫算은此를是認하고大正十五年以降은更히合理的인計劃을樹立하야改良함을望함 그리고右案은研究會側에서起草하야交友側에同意한것으로此를一讀하면財政計劃을是認하는故로濱口藏相의財政政策에影響이업고畢竟仙石鐵相만의彈劾이될것을알수잇스리라더라

衆院豫算總會

(東京電) 大正十四年度의追加豫算案을審議할衆議院豫算總會는十七日午前十一時四十五分에開議하엿다

一、大正十四年度歲入歲出總豫算追加案(第一號、二號、三號)
一、大正十四年度各特別歲入歲出豫算追加案(特一號、一號)
一、豫算外國庫의負擔이될契約을할을要할件(追第二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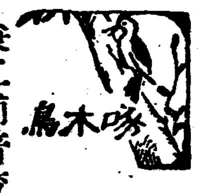
三案을一括하야議題로삼고質問에들어가는旨를宣하자加藤首相에對한中村啓次郞氏의質問은首相의形便에依하야本會議에移하기로하고바로討議이始作되야中村啓次郞氏(本) 我黨에서贊否의意見을本會議에述하기로되엿다하야이를保留하고다음에櫻井軍三佐氏(憲) 本追加案에對하야는我黨은여러가지로審議한結果今回政府의妥當한要求로認하고原案에對하야贊成하기로되엿다고贊成을述한다음에政友會의東武氏(政) 我政友會에서도本追加案에對하야는全然贊成으로砂田重政氏(革) 外務省關係에對하야는考究를要하여야할것이나不得已한要求로認하고原案에贊成한다라고贊成意見을述한다음에杉宜陳氏(中) 本追加案에對하야는全然贊成이나特二號에對하야는[illegible]案은아즉衆議院을通過치못하엿슴으로이通過를條件으로하야贊成하려한다라는條件附贊成意見을述하매町田委員長 特二號에對하야는衆議院을通過하기까지贊否를保留한다는意味이나 杉氏 保留는아니다希望條件附贊成하는것이다그리고條件은採決할必要가업다라고贊意를反復說明하고此로써討論終結을採決한結果本黨을除하고其外는全部起立하야大多數로써政府原案을可決하고委員長이連日의勞를謝하고與黨側의拍手裡에十一時五十五分에散會하엿더라

水利組合 受託經營計劃

不二興業株式會社社長藤井寬太郞氏는兩三年前부터計劃하든全朝鮮水利組合에保證付受託經營에就하야具體的活動을하게되야先般渡東後下岡政務總監의諒解를得하고更히金融業者에게도諒解를要求하는中인데此에對하야氏는말하되『最近全鮮水利事業의趨勢를見하면吾人이十四五年前에思하든程度의計劃이多함으로此가即當事業의失敗原因입으로吾人은些少한經驗이라도有함으로全鮮에亘하야土地改良委託經營을受하고竣工及收益等에保證을附하야朝鮮을爲하야活動코자한다』云云

江景兩會間의 問題擴大 畢竟格鬪까지

忠南江景地方에서는靑年相愛會와靑年會間에벌서半年前부터問題가생기여兩會幹部들도여러가지로協同交涉도하엿고或은兩會幹部中에서個人의身分으로和同하기爲하야調停하엿스나和同의希望은조곰도無한向으로兩會에서는問題거리가되야오다가去十四日本報朝刊記事中『江景靑年會의決議事項』을보고相愛會에서는一層憤怒하야緊急幹部會를開催하고靑年會에質問하기로決議가되야同日午後七時부터靑年會側에서는會와緊急事가有하야同事務室內에서幹部會를開催하는中에『相愛會』의代表人인同會副委員長金星國氏와同會幹部金元會氏가靑年會事務室로가서靑年會長尹吉重氏를代表로삼아質問에着手되야엇는데相愛會代表金星國氏가먼저靑年會長尹吉重氏에게十四日朝刊朝鮮日報에記載된內容이貴會에서決議한事項과相違가無하냐問하매靑年會代表尹吉重氏는相違가無하다答하자金星國氏는會의決議事項에對하야여러가지로尹에게質問하고尹은答辯도하엿스나別로히鬪爭이되지못하고또金은何如間會館問題에對하야 [illegible] 聲討한다고決議한것이너무나無理한所致이아닌가하매尹은그러면相愛會는有罪하고靑年會는無罪하다고하여도關係업다고答하자金은또公賊이라한것을問하매尹은公賊이라는것은[illegible]하자靑年會員側에서는金에게社會事業을妨害하는者인故로公賊이라하거니金은妨害한것이무엇이냐고하거니說往說來하는中에入參하엿던兩會員百餘名이興奮이되야格鬪가始作되야一大修羅場化하엿는데急報를들은當局에서는警部以下巡査數名이出動하야여러가지로緩和를勸告하엿스나終是順應치아니하는故로結局解散을命令함으로兩會에서는[illegible]結局問題는더욱擴大할模樣이라더라(江景)



投稿歡迎

兼二浦普校公職者及學父兄에게

◇去三日午前十一時에爆發한兼二浦公立普通學校四五六學年生徒一同의盟休事件은未成한少年輩의事이라 그形式과方法이完全치못하엿기때문에或은輕擧兒戲로等閑視하는者도無치안흘것이나

◇然이나天眞이爛漫하고一毫假私가無한赤心에서湧出된그憤激은實로凡常한事情이아니며또는그動機가不人可窺할怪惡醜悲한事實이此를釀成함에因함이라 幸이지不幸인지幾個擔任敎員의懇切한勸諭에依하야所謂復校로써表面上解決을得하엿거니와오히려社會의批評과生徒의不滿은조금도緩息될바를아지못하나니余는그下回의結果를注目하려한다

◇또는五里霧中에潛在한內容事實을구태여余는世上에公表코자도아니한다 그러나兼二浦地方에잇서서는그事實이旣히公然한秘密로서一般社會의與論이沸騰한今日에잇서서 所謂學校의公職(日評議員、日學務委員等)을奉職한者와直接子侄을兼한學父兄諸君은何等의緣故를讓치아니하고一向他山의火로看過하니諸君의所謂奬譽노自認하는그公職보다重한지寶玉으로愛重치안는면아닐그子侄의前途가可惜치안흔가 木石이아닌諸君은自家自身을爲하야思함이잇서야

◇勿論余기로盟休生의復校가速하엿슴을깃거아니함이아니나다만一時表面上解決에安閑하야種種의事實을不問에付하엿다가將來에收拾치못할境遇에陷케하는지가諸君의責任上으로論하더라도니될가하는憂慮하는同時에또는諸子侄의將來에影響이되지아니할가하야 一二個人의眼目에拘碍되여貴重한子侄의將來에禍根을胎케함은到底히社會로서看過치못할罪惡이것기에一言을告하여둔다 (一 次憤生)

十四字五十行以內要 住所氏名明記

靈岩無產靑年이 勞働會를發起

二十一日에創立總會

靈岩無產靑年會第一回月例會에서勞働會發起人會를組織키로하고旣히發起人會를選定하야發起總會를開한다함은이미報道한바이어니와去十二日下午八時에發起人張斗星、孫吉祚、韓在鵬、曹士元、金東鎬、趙鳳煥、韓鋼鎬、金鍊洙、金正浩、金俊冠等諸氏가西南里櫃正旅館에會集하야互相間意思를交換한後創立總會의日時와場所를左와如히決定하고大大的으로宣傳하야만흔會員을募集키로하고特別히傍聽은大歡迎한다는데規則修正委員으로鄭相鎬、金東鎬、孫吉祚、張斗星、曹士元等五氏를選定하고同十一時頃에無事閉會하엿더라

一、日時 三月二十一日下午八時
一、場所 東武里郎南學院講堂에서 (靈岩)

前進會가前進 會館을新築하고 勞働夜學을開設한다

全南順天郡嚴川面에는昨年에面內有志靑年崔中鉉、羅成彬、外諸氏의發起로前進會를組織하야面內農村의地主對小作人關係와其他一般의惡風弊習을防止하자는目的下에서活動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其後本會의進行成績이매우良好하야一般의贊頌이不已함에따라서會館을建築하자는發論이잇자一般有志家에서는目下糊口之策이無함도不拘하고會館建築로多額을捐出하얏다는바義捐金總額이五百圓以上에達하야竹林里에垈地를選定하고方今工事에着手하얏는데竣工期는今年四月末日頃이라하며落成한後에는發耕夜讀의一例로會館內에勞働夜學을開始한다더라(栽寧)

光州學校評議 光州面은 一戶當六圓二十錢

全南光州郡學校評議會는지난十日午前十時郡廳會議室에서開催되얏는데當日은小島郡守의開會辭와諸問案印刷物配付及諸問案의說明이有한後에自動車로光州公立小學校、監獄、水源池、慈惠醫院、種苗場等의觀察로써第一日의會議를마치고其翌日第二日에는諸問案에對하야[illegible]로原案과如히可決되고閉會하엿는데學校費負擔은全郡平均一戶當三圓二十錢이나光州面은一戶當六圓八十錢이라더라(松汀)

全州各會議日字

全州郡에서는左記日字에依하야各種會議를開催한다더라

◇今月十六七日 學校評議員會(十四年度豫算諮問)
◇同十九日 鄕校學議會(十四年度豫算諮問)
◇同二十日 面長會議(旱害救濟其他事項)
◇同二十一日 各種產業團體協議會(十四年度豫算決算)(全州)

河東靑年 革新講演禁止 演士가

慶南河東靑年會는그동안여러가지障碍로因하야發展되지못한것으로有志會員의大奮發로內容을改革하야面目이一新하다함은이미報道한바어니와同會에서는執行委員會에서決議된革新紀念大講演을열기爲하야演士는趙東燦、劉東俊兩氏로決定하고本月十五日로日字를豫定하얏든바當地警察署에서는演士가靑年會員이아니라는理由로禁止함으로不得已日字를延期하야開催하기로되엿다더라(河東)

背屯에 避病院設置

慶南兩城郡會寧面背屯里는產業의發展을따라數年前부터各地에서移住民이날로늘어지금은人口가二千餘名에達하는本郡第二市街地이나或傳染病이流行할時에는患者를收容할機關이업슴으로當地有志는年前부터計劃해努力中이든바今般에서千圓補助金과二千圓豫算으로避病院을設立하게되야方今建築中이라더라(兩城)

統營專賣移轉

今般統營煙草專賣局出張所를晉州에移轉하고자現在諸書類及備品等을輸送搬出하는中이라는데此는統營에서甚至이外가티移轉하라는內容은去十二日同所附近民間家屋에서出火하야不幸히同事務室도全燒됨을機會로삼아移轉함이라더라(統營)

保護者會組織

金泉公立普通學校에서는本月十五日에兒童保護者會를組織하엿는데其事業要目은(一)兒童獎學의方法과學校와家庭과의聯絡(二)學校에對하야敎育振興上의利益을圖할事項(三)其他學校에關한事項이며當日選定된任員氏名은如左하다더라

會長 [illegible] 副會長 [illegible] (金泉)

沙里院幼稚園 不遠에開園될듯 期成會의熱誠으로

黃海沙里院東監理敎會에서沙里院唯一한幼稚園을設立하라고期成會를組織하엿다함은이미報道한바어니와期成會의代表安昌敎牧師는同敎監督文約翰氏와諸般準備와維持에對한永久策을決定的으로討議하려고자난十六日十二時車로入平하엿는데開學日字는四月上旬以內일듯하다는바벌서入園코저志願하는兒童이만타더라(沙里院)

盛況의 新灣靑年紀念

新義州新灣靑年會에서는旣報한바와가티지나간十五日正午에創立二週年紀念式을委員長金得麟氏의司會로擧行하엿는데順序에依하야委員長의式辭를비롯하야林亨寬氏의同會沿革說明과祝電祝賀文을朗讀한後來賓中으로崔昌朝、卓昌河、宋濟元、尹昌萬、李禮用、金正瑞諸氏의意味잇는祝辭와會員中으로金景瑞氏의答辭와感想談이잇슨後萬歲三唱으로閉會하고이어서一般來賓과함의和氣靄靄한속에茶菓를난호엇는데當日紀念式은未曾有의大盛況을呈하엿다더라(新義州)

石工의團結 平壤에서

平壤石工組合의創立總會는去十四日下午八時府內勞働聯合會內에서開하고規則通過와其他事項을討議한後委員을選定하고左記와如한綱領과決議가잇섯다더라

◇決議
一、平壤勞働聯合會에參加할것
一、民衆運動者大會에參加할것

◇綱領
一、吾人은勞働者의生活向上과當面의利益增加를圖함
一、吾人은勞働者의階級的自覺을促進하야其團結을圖함

◇委員
委員長 崔時濂 常務 安鼎重 金奎鉉 (平壤)

安州靑年도參加 民衆運動大會에

安州城內安州靑年會에서는今番大會에參席키로決定하고代表로張東燮、許楨兩氏를選擇하엿다더라(安州)

流會된面協議 不法이라바람에

지난三月十一日에黃海道長淵郡大救面에서는豫算案을協議하기爲하야面協議員會를召集하고面長朴洪興君이起立하야開會를宣言하고大正十四年度豫算案을諮問에付한다는旨를宣하고後에會計員이起立하야豫算案을朗讀하자某氏가今番協議會는召集의節次부터法規에違反하얏슴은아니라더욱히法定數의議員이出席하지도아니하얏슴을不拘하고開會하는것은徹頭徹尾의違法이니今日에는到底히豫算案을討議할수업슬뿐아니라此를討議한다하면되다하야도無效가될念慮가잇스니後日다시하기로하고그만두는것이조치아느냐고하매面長은狼狽하야엇절줄을모르다가厥辛히「그러면今日은不得已이대로閉會하고다시期日을定하야召集하는수밧게업슴니다」고하고因하야閉會를宣言함으로그만流會가되고말앗다고(長淵)

同胞의週年追悼 龍塘浦遺族! 海州少年修養會가

지난十四日下午三時에海州南本町商業會議所에서海州少年修養會定期總會를開催하고會錄朗讀及各部報告가잇슨後에規約改定任員改選及其他여러가지事項을決議하엿다는바그決議된任員과決議事項은左와如하다더라

◇任員
敎養部 金興燮 金弼涉 金溶鉉 庶務部 金喆 朴孝子 張星祚 柳斗星 李鎭秀 洪乃喜 體育部 金鍾元 安鍾彦

◇決議事項
一、早起會를開催할事
一、書畫展覽會를四月中旬에開催할것
一、龍塘浦遭難同胞追悼會를遭難當日(四月二十五日)에追悼式을열것(海州)

普成中學後援 觀劇大會盛況 四團體後援으로興行

成川普成中學講習所는設立된지數個星霜에經費不足으로困難한形便이던바今番劇界의名星인兄弟座玄聖完君一行이來成함을期하야成川靑年會、修養會、成川天道敎靑年會、東亞朝鮮兩支局後援으로十三日成川天道敎堂에서普成中學後援觀劇大會를開催하엿는데滿堂의大盛況을일우엇고俳優의神奇한妙藝와雪中梅란劇은一般에게熱狂的歡迎을바덧는데多額의同情金이잇섯다하며其氏名은如左하다더라

成川自働車商會、成川富山自轉車店、尹致鎬、安性道、天道敎宗理院各五圓、成川天道敎會三圓、崔祐議、李洛範各一圓、朴洪觀二圓一圓以下略(成川)

枇峴公普學藝

枇峴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十四日에本校講堂內에서第二回兒童學藝會를開催한바定刻인午前十時半부터六七百名의學父兄과有志의兄弟姊妹가雲集하야盛況으로開幕하자男女學生의깃븜에넘치는얼골로順序를따라唱歌、讀書、話等六十餘種의目錄을滋味잇게進行한中『同情』이란歌劇은一般學父兄으로하야금無限한興味를與하고午後四時頃에閉會하엿다더라(枇峴)

博川特產物產額

博川郡의昨年中特產物產額을보면左記와如하다고

品目	數量	價額
朝鮮蠶繭	一、五五一 個	一二、四八 圓
蠶繭金具	四、〇八六	六、九〇七
籠物	二七、五〇	四三、九七〇
冠物	八、三二〇	四一、六〇〇
綿布	六九、五三〇	一六、六〇〇

(博川)

成川夜學修業

成川靑年修養會智德部事業으로每年經營하는夜學會는昨秋부터連日繼續하여오든바十四日午後成川耶穌敎堂에서修業式을擧行하엿는데修業證書를바든學生은七十八人이라더라(成川)

伊川農事講習 江原道

伊川郡에서는本月九日부터郡廳會議室內에서農事講習會를開한바十四日에終了하엿다더라(伊川)

地主大會 一時空氣險惡 良德水利紛糾로

旣報와如히北靑良德水利組合紛糾事件으로因하야本月十二日에北靑에서地主大會를北靑年會館內에서開하고地主大會執行委員으로부터經過狀況報告가잇슨後組合長의辭職書를接하엿스나組合에서마침評議會를開하너라고出席이遲晩된까닭으로이에憤慨한地主七八名이組合事務所로가서評議員中某는一般地主에게害毒을준다하야그者를大端上으로끌어내여傳導를주는中에組合長은當場이出席하엿슴으로地主代表는質問을하기始하야空氣가險惡하다가地主四百餘名은[illegible]

咸南大麻生產高

咸南의大麻生產高는年年多少의差異는잇스나將來有望한事業으로서囑望하는바昨年中의各郡作付反別收穫高는如左하다

郡名	作付反別(反)	收穫高(貫)
咸興	一二三	一、三二〇
定平	五八〇	五、五五七
永興	四、〇一七	五五、三九八
高原	一、八〇二	二一、三五七
文川	五四〇	五、八四三
德源	四七三	一一、二六五
安邊	八三一	一六、六四一
洪原	一、三〇四	一四、〇七八
北靑	二、四六九	八七、九八二
利原	一七二	二、一〇四
端川	二、八九四	三二、六二三
新興	一、七四七	二〇、七一二
長津	三、〇六三	五七、四七六
豐山	四、八一八	六一、一五四
三水	三、二七一	三六、五〇〇
甲山	三、五六六	三七、六二一
合計	三一、七三六	五八七、六三〇

江陵義崇學院 內容을擴張充實 女子敎育을爲하야

江陵郡邑大和町에잇는私立義崇講習院에서는創立以來江陵의敎育界에莫大한功勞가잇던바今年에이르러그學院에서는內容을더욱擴張하고充實히하고힘업는女子界를爲하야盡力하리라는데今年度生徒募集은如左하다더라

第一組 普通學校第一學年程度 男三十名 女五十名
第二組 普通學校第二學年程度 補缺生男女若干名式
第三組 普通學校第三學年程度 補缺生男女若干名式
第四組 普通學校第四學年程度 補缺生男女若干名式
速成部 普通學校五六學年程度 補缺生男女若干名式
出願期日 三月十日로四月七日
受驗期日 四月十日이요資格에依하야省畧한도得하며入學金은自一組로至四組外지는一圓이고速成部는二圓(江陵)

永川少年總會

端川郡利中面永川少年會에서는지난三月十日에同會館內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고任員을總改選하엿는데新任員의氏名은아래와갓다더라

會長 金和律 副會長 金澤俊 總務 金基遠 幹事 金基燮 智育部長 金鎔洙 運動部長 金敏燮 書記 金湖燮(端川)

端川靑年會도 三十歲制限

咸南端川靑年會에서는지난十二日午後八時에當地天道敎會堂內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고臨時席長崔中執氏司會下에會計報告와事業報告가잇슨後討議案에드러가서義務不誠實한會員을淘汰하기爲하야會員整理를하기로하고正會員의年齡은三十歲以上은特別會員으로하기로하고三十歲外지하기로特別會員은選擧權반업기로하얏스며本月二十一日에咸興에서열리는咸南靑年大會에代表一人을參席케하기로可決하엿스며在來의會規는一新改定하기로하고新春에農村巡回講演도하기로하엿스며委員은總改選을하엿는데新任委員은左와如하다더라

◇委員
沈弘澤、金河龜、崔中執、梁在麒、千東健、權炳熙、薛雲麒(端川)

淸津、雄基間에 四月一日부터開航

淸津以北各地의旅行者를爲하야淸津、雄基間에連絡船의就航實施키를雄基方面에서運動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其後同問題는順調로進行되야來四月一日부터正式으로櫻井丸의航海를開始할터이라더라(元山)

伊川에討論會 江原道

伊川郡基督靑年會에서는去十四日午後八時에當地禮拜堂內에서討論會를開催하엿는데『社會發展은敎育이냐產業이냐』라는問題로可便演士는金海觀、尹致鎬兩氏오否便演士는朴世浦、李春植兩氏의討議가잇슨後金仁寬、朴夏允、宋九泰諸氏가辯論하엿고[illegible]散會하엿다더라(伊川)

客月元山米豆輸出

二月中元山에서輸出된米及大豆의數量은左와如하다며

◇玄米(單位叭) 大阪九一四七、神戶二三八〇、敦賀二五〇、下關三三〇、舞鶴一、九四〇、宮津二九五〇、合計一六九九七、今年累計七三、九八五
◇白米 大阪一四〇、神戶三〇〇、敦賀五〇、下關二〇〇、舞鶴五七五、宮津一六〇、合計一四一四、今年累計二一、九五七
◇大豆 大阪五九五三、神戶二三五五、敦賀二八三〇、下關四五〇、宮津五〇〇、門司九五〇、宇品二四〇〇、伏木三三五、小見島三六〇六、[illegible]五〇〇、合計一九八六九、今年度累計一八七二二五(元山)

新高山少年總會

咸南新高山少年會에서는去十三日午後八時부터當地禮拜堂에서第二回臨時總會를開催하고會長文壽彦氏의司會下에左記事項을討議하엿다더라

一、義捐金에關한件
二、圖書室及運動場에關한件
三、宗敎部의傳道方針에關한件
四、會員間哀慶相助에關한件
五、其他(安邊)

交換擴張計劃

目下元山郵便局의市內電話加入者는七百三十餘名이잇는바至今으로부터一二年間은單式交換臺로서交換에別故障이업겟스나早晩間新式複式交換臺를裝設치아니하면交換不能이겟슴으로遞信當局에서는去年度豫算에實現하라던바今年度에는其必要를認定하나此를實現하라면總額의增加十萬圓交換臺購入費四萬圓合計十四萬餘圓의巨額을要함으로곳實施키는難하나數年中에는實現이되리라더라(元山)

高城靑年委員會

江原道高城郡高城靑年會에서는지난十二日에本報高城支局內에서第三回執行委員會를開催하엿다는바決議事項과宣言綱領을發表하엿다더라

◇(宣言綱領畧)
◇決議事項
一、勇進靑年會主催의高城靑年 [illegible]

元興校友會의美風

元山元興學校校友會에서는三月例會를去十四日에場村洞許鳳祚氏의家에서開하고協議한結果左記二項을決議하엿다더라

一、同校友會所有의山約一萬坪에植樹를하야同會의基本財產으로할事
一、在來着用하던白衣를改良할目的으로會員이率先하야衣服은全部色物을使用할事 但家月例會에는會員의家族을모으고此普及을圖할事(元山)

龍江面協議會 高陽郡

龍江面에서는去十六日午前十一時부터面協議員會를開催하엿다는데十三年度歲入出豫算은一萬五千五百十九圓이던바今年度歲入出豫算은一萬三千五百十九圓으로昨年度보다二千圓이縮少하엿다더라(高陽)

謹告

三月十八日附(十七日夕刊)本報第一千六百五十一號는第二面記事中當局의忌諱에抵觸되야發賣禁止의處分을當하얏기로該記事만을削除하고號外로發行하얏기玆에謹告

朝鮮日報社

期米

仁川期米 第二報 (三月十七日)

後場低徊

今朝前場阪止三十八圓三十一錢에比하야當地는三十八圓三十五錢에軟調를帶하고保弱中堅인小康의報에當市場은今夕後場에阪地初付도押下된八圓二十九錢인報에入丁低落된三十五圓五十七錢에始하야六十錢二番同步로다시阪報三節小康인三十三錢報를接하고六十五錢으로되야六十一錢으로又復低調하다가結局阪止三十四錢報에五十八錢으로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七丁이오阪仁의鞘는二百七十六丁이더라

大阪場況 十七日後場

今日大阪後場市況은中東筋及『마바라』의賣와地場賣買로二十九錢에始하야此邊에釘着되엿더니商物薄으로因하야三十三錢으로低落된後다시三十五錢으로反撥하엿다가商內閑散裡로三十四錢에保合氣分中에場을止하엿다고

◇各地止價◇

地名	十七日後止	昨止比較
大阪	三八、三四	[illegible]
東京	三九、五二	[illegible]
兵庫	三七、七九	[illegible]
下關	三八、二五	[illegible]
桑名	三七、九三	[illegible]
名古屋(後夕場)	三七、九六	[illegible]
	三八、一九	[illegible]
金澤	三八、一一	[illegible]
熊本	三八、一七	[illegible]
仁川	三五、五八	[illegible]

◇阪仁氣配◇

大阪 一錢高
仁川 三十五圓五十九錢六十錢

◇各限後合◇ 十七日後場

當限(計二、三〇〇石) 賣方 [illegible] 二、〇〇〇石 [illegible] 三〇〇石 買方 [illegible] 三〇〇石 [illegible] 二、〇〇〇石
中限(計六、〇〇〇石) 賣方 [illegible] 五、〇〇〇石 七〇〇石 二〇〇石 七〇〇石 買方 [illegible] 三、六〇〇石 一、三〇〇石 三〇〇石 一〇〇石 二〇〇石 六〇〇石
先限(計四七、七〇〇石) 賣方 [illegible] 四、七〇〇石 七〇〇石 一、四〇〇石 六〇〇石 七、〇〇〇石 三、四〇〇石 五、二〇〇石 四、六〇〇石 [illegible] 買方 [illegible] 三、五〇〇石 三、三〇〇石 一、五〇〇石 二、〇〇〇石 一、三〇〇石 三、〇〇〇石 一、九〇〇石 [illegible]

大韓青年團員被捉
고향박천에왓든긔괴선 경찰에잡혀취됴밧는중

중국흥경현(中國興京縣)에근거를둔 대한청년단원김긔선(大韓青年團員金基善)(二六)은 군자금을모집코자 활동을하든바 얼마전에 자긔고향박천군 룡계면삼광동(博川郡龍溪面三光洞)자긔집에 도라와잠복하엿다가 박천경찰서에 데포되야 엄중한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 그내용을듯건대 대뎡팔년십이월에 대한청년단에 가입하야 단원중강련수(康鍊洙)(三〇) 리정귀(李正龜)(三二) 탁공사(卓公事)(三二)네사람과가티흥경현에서 군자금을 다수모집하야 청년단에 보내고십년에는 각기권총을 가지고 창성(昌城) 디방에 침입하야 군자금 백여원을모집하여보냇다하며 금년이월에는 고향에잇는부호류희명(劉熙明)에게 협박장을 보냇스나목뎍을 달치못하야 금번에 몸소고향에 온것인듯하다더라(박천)

寧邊에武裝獨立團
네명이나타나금품강탈 경관대는뒤쏫차수색중

지난십어일 상오십일시경에 녕변군연산면화천동(寧邊郡延山面花川洞) 부호신래조(申來朝)의집에 무장한독립단 네명이나타나서 주인신씨에게 군자금을청구하엿스나 마츰 현금이업섯슴으로 독립단은 후일에다시올터이니 예비하여두라하고 종적을 감추엇다는데 소관녕변경찰서에서는 수색대를 조직하야목하추격중이라더라(녕변)

東萊훔치의末路
부사감사도일장춘몽이오 탕진가산에후회도무소용

새악쥐가 쌀낫한개만 무러가도 사람의주의를 쇠을만치 밝고도 약은 이세상에살면서 공연히머리털을기루고어둠컴컴한 밤구석에 모여안저서 『훔치사파』만 부르면서도 행혀나 암행어사출도나할가하야 밤낫기다리고 잇는훔치교도들이 각디 청년들에게 개쳣도를 당함은당연한 일이다 경남동래에서도 소위 정교부라는간판을 부쳐노코

마흔교도 들이날마다무엇을하는지 낫독갑이 노름으로 커들쉬리 수군수군하더니 웬일인지 요사이에와서는 그보기실흔간판을 치어바리고 도모지출입업시 들어안젓다는데 그들을 엇더커로 위원이방문한즉『참으로이상한 일이외다 웨세상사람들은 우리를 친일파(親日派)라니협잡군이라니 하고욕설을 함닛가 무론욕설을함에는 리유가잇슬것이 아닙닛가?』함으로그 리유를 자세히말한즉『그럿슴닛다 가참으로 우리는그러케 뒬줄은몰낫슴니다 우리가 무엇을아나요우에서 그러케지시를 함으로 다만 쌔를쏘임니다 엇지하엿든 우리도 이제는쌔다른 바가잇슴니다

여러분이 청토를아니하셔도 우리는기진 해산하게되엿슴니다 그러나잇든 살림들다ㅡ허비하고 보니이제는 먹을것조차곤난하게되엿슴니다 세상사람들에게는 신용을 모조리일허바렷스나 아모것도 어든것이라고는 업슴니다 이제는붓그러워서 출입도못하겟슴니다』고 무론ㅡ이 도가얼마나되느냐고 무른즉『이삼년전에는천여명이나되든것이 금년에와서는 삼십오륙명박게는 되지아니합니다 그뿐아니라 당신들이 청토한다는바람에 그것도 또줄어서 참으로보련교도라고는 오륙명박게는안됩니다』하며 얼골에는후회하는 빗이가득하엿더라(동래)

慶北青年大會禁止
간담회도절대로못하게

상주(尙州)에서발긔된경북청년대회(慶北青年大會)는지난십일에 김천(金泉)에서 하려다가십오일로 연긔하고장소를대구(大邱)로옴기여개회코저지난십오일에 이십여명이 모히엇스나당국에서는 대회는고사하고 간담회나 홍은다과회까지 금지하야 해산하고 말엇는데 대구의공기가 너무나 험악함으로인하야십오일저녁으로각각대구를떠나는것이 조흠뜻한 당국의의사가잇슴으로인하야 모다잡으로 도라왓다더라(대구)

全朝鮮衡平 委員會
십사일마산에서 네가지일을결의

경남진주(慶南晋州)에본부를둔 조선형평사 련합총본부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십사일에 경남마산(慶南馬山)에서개회하고남북을 통일식혀서운동을 재흥키위하야 다음과가튼 사항을결의하야실행 위원에게 일임하엿다는데 실행위원으로는리상윤(李相潤)신선준(申先俊)씨외 일인이피선되엿다더라

一、경성에잇는 총본부 집행위원이나 보통사원중에서나 형평운동 통일을교란케하는 인물은 형평운동에 관계를단케하며적극뎍으로 성토또는 박멸할것

一、진주에잇는 련합 총본부를 경성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하고위원을 경성에 파송하야모든방침을협의결뎡할일

一、일본수평사원도(遠島)와대구(大邱)김경삼(金慶三)사이에 문뎨되엿든 부정한비밀사건의 관계인물장지필(張志弼)을전조선민중 운동자대회준비위원으로 선뎡한 그주최단톄에항의할일

一、전조선 민중운동자 대회에각디방단톄로하여곰가입케할일(마산)

小作、印刷、假教
기타두문뎨결의 신우회림시총회

황해도사리원(黃海道沙里院)에잇는 신우회(新友會)에서는 지난십오일 오후팔시에 림시총회(臨時總會)를본회관안에 열고 림시의장장룡진(張龍鎭)씨사회하에아래와가튼결의를하엿다더라

一、火曜會主催인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에參加할것

二、大邱青年會除名事件에對하야는本會代表가上京하야決議하는대로하기로全權을一任할것

三、舍人面小作人救濟金에對하야는陰二月二十五日에舍人小作組合에出給하기로할것

四、普天教와神道教等의問題에對하야는三回聲討演說會를開催한後若不聽하는時는個人行動을取할것

五、平壤印刷職工에게는聲援文을印刷職工에게는聲援을하기로決定(沙里院)

五五會總會 경북례천

경북례천(醴泉)에잇는오오회(五五會)에서는 지난십사일오후 팔시에명례총회를 열고여러가지 사항을 토의한후 전조선 민중운동자대회(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에참가하기로결의하엿다고(례천)

甲子青年總會 경주

경주군(慶州郡)에잇는갑자청년회(甲子青年會)에서는지난십오일에 림시총회(臨時總會)를 개최하고주재석(朱在奭)씨의사회하에 만장일치로 다음과가튼결의를하고오후네시에산회하얏다더라

一、全南青年大會에參加할것

一、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에參加할것

一、朝鮮青年總同盟에加盟할것

一、青總에서大邱青年會를一次의討議업시除盟한은不當하니此를調査하야社會의輿論에付하는同時에理由가曖昧할을問責할일

一、義州普校學校被壓迫加盟運動에後援하야其目的을達케할事

一、補缺委員은朱際淳氏當選되다(경주)

仁川署의兩日活動
경성방면에서 범인을잡어섯다

지난십륙일 정오부터인천서(仁川署)에서비상소집을하야 대활동을 한다함은 이미 보도하엿거니와 당일의 시내경계는매우엄중하엿스나 별중요범인의 데포는업는듯하더니 동일 오후에경성(京城)방면으로출장하엿든형사대는 무슨범인두명을 데포하야 방금인천서취됴중인데 비상경계는 십칠일에도 계속중이며 당일이른아츰에 강본(岡本)부산서장(釜山署長)은아직출근도아니한대삼(大森)인천서장을방문하엿슴으로 대삼씨는 출근시간전에 강본씨를마저 장시간밀담을 하엿는바 강본씨가 돌연히인천에 온것은매우 주목된다더라

별일은업소 인천서모경부담

권긔 활동에대하야 인천서사법계모경부의말을드르면 별일은업슴니다 평소에 하는 경계이지요 경성서 데포한것은 절도범에 불과하고 부산서장이인천에 온것은 무슨일인지모름니다 하고자세한말은하지안터라(인천)

普天教聲討會 통영청년동맹에서

지난십사일오후팔시에 통영청년동맹회주최(統營青年同盟會)로 보천교성토대강연(普天教聲討大講演)을통영청년회관에서개최하엿는데 당일초저녁부터 몰려드는군중은립추의여디가업시 대성황을이루엇는데 황덕윤(黃德允)씨의사회아래 모든연사의 열렬한 웅변은 청중으로하야금 무량한 감상을 이르키는중연사 박중한(朴仲漢)씨의 강연에 이르러 돌연히 연데와틀린다는데 으로경관의 중지를당하야 장내공긔는 일시긴장하엿스나 부득이중지를 당하고 그후수삼연사의 강연이잇슨후실행방침은 다음날로 미루고동십일시반에 폐회하엿다더라(통영)

智島繁榮會와 乙丑同盟의葛藤
디주와주구배가부동하야 소작인간부륙명을고소해

전남무안군지도소작회(全南務安郡智島小作會)가포악무도한 디주의독아(毒牙)에서버서나려는 비통한로력의 첫거름으로써 간부라만성(羅萬成)주명식(朱明植)씨외사인이희생이되여수감이되엇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와갓거니와 그시말을 됴사한바에의하면 지도인민의원래무지、소박、침묵한배성으로디주의무리한 착취와 학대를 바더오든바 가난한사람도 살어야하겟다는새로운 사조가 발흥함에따라필경그들의 선구자인김상수(金祥洙)라만성(羅萬成)량씨는로동신성의 대의를 부르지저무산민중을로농의괴人발뻣흐로모아소작회、청년회、임은로동회(賃銀勞働會)무산자동맹단데를조직하야 분투맹진한결과 필경혈루(血淚)의소득으로논사할、밧삼할(畓四割、田三割)의소작료를규뎡하야디주측까지승락을바든후 소비조합까지 설립할준비에착수를하든바

디주중에 일본인두명은그곳에서잡화상(雜貨商)을하야이중(二重)으로조선인의돈을글거가든바 만일 소작회에서소비조합(消費組合)까지 설립하면매매량방(賣買兩方)이소비조합의주인으로되는 관계상 재래로 홍정을독뎜하든 자긔들상뎜에큰타격을바들것을 깨닷고백방으로 흉계를 꾸미든중 소작회를박멸함이 자긔들의 농리상리(農利商利)상일거량득이됨으로몽매한조선디주를선동하야

소작회는 공산주의를배경(背景)한 위험한 단톄라금년소작료는 삼사할이나 명년에는일이할로 차차 나리어서나종에는자긔소유를 전부 쌔앗길터이니 디주도 디주회를조직하야 소작회를 박멸하자는 남의장단을 마추어 영농이춤을추는 가련한 고동매한 조선인디주는 눈에가시가티 미워하든 소작회를업시하자는말에 혹하야 곳디주회를 조직하고 소작회를박멸할 두하든중 불행히소작회 간부중에 사소한일로의사충돌이 잇섯든데 눈긔회를엿보고잇든 디주의 솟카로운 눈은이긔회를 리용하야

곳소작회 간부중에불뎔더한 주판동(朱判東)량영협(梁泳俠)등사명을교묘한 수단으로매수하야 소위 번영회(繁榮會)란긔관을 만드러소작인으로 소작인을 몰고짓게하는 디주의주구로삼앗다는데 그들은 소작회 간부로 잇슬때에도 중대한사명을띄고소작료감평(鑑坪)을가서 비밀히 디주와결탁하야 소작회 규뎡을 무시하고 폭칠할이상을 감뎡하엿슴으로

소작인은 분긔하야인면 수심의 의리업는자라고 소작회에서축출을 당한자들로 시비의 판단이 어두운농민을 함부로속이며 위협하야항정에 모라넛는 수단으로 디주를반대하며 번영회에 듯지아니하면 디주회에서 논을뗀다 는일본이민에게 소작을 주어서조선소작인은 다굴머죽게 하리라고 위협하며디주에대한 채무(債務)로가산집물을집행하야농민을파산식혀서

길가에서 방황하다 가긔한의 귀신이되게한다 고하며몃 몃곳에는 이미지불명령까지 하엿다하며 소위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는과거농로시대(農奴時代)에서나볼수잇슬는지 디주만 [illegible](地主黨)을 유감업시 괴롭한것으로 번영회에 위임하야다시소작권을 이동하되 번영회에 입회하는자에 한하야 승락하는 모양이고 소작계약을하는 농민도 계약의 내용을모르고 다만소작계약이라함으로 자긔들의인장(印章)을 찍는다하며 혹그계약이 너무나 무리하다하면 지도인민이

굴머죽는 다하며도번영회원은 디주회에서 돈과곡식을주어 풍년을맛는다하야 무지가련한농민을 함부로속이여 청년배일하에서 독갑이 연극을하는 것을 분개한면민들은 소작회의 외삼단톄를 중심으로하야 을축동맹(乙丑同盟)을 조직하고 이 독갑이 연극을방지하라고 소작운동선전대(小作運動宣傳隊)를 동리마다 순회케하야 소작인을 방문하든중 소작회원으로 배의하고

번영회원이되어비열한 행동을하는 박채언(朴彩彥)을 보고그가 정함을 힐책하든바그 의면상에 침을배앗고 뺨을 때린일이 잇섯는데 디주와번영회에서는 무엇보다 조흔긔회라 하고 박채언을중농식혀 진단을 내어 목포(木浦)검찰서에가 욕침악、업무방해、상해죄로고소를 하얏슴으로 소작회간부 라만성(羅萬成)외 오인이 수감케된것이라더라(목포)

短刀가진三名強盜
일인을위협후금품칠백원강탈

지난십일밤 열한시나되여 청주군청주면서천뎡(清州郡清州面西川町)四九 산중진장(山中辰藏)이란 대금업하는 일인의집에 세명의 강도가드러와현금 륙백칠십원과 금시계한 개를 강탈도주 하엿다는데 그자세한말을 들으면 전긔주인은 마참그때까지 화로를쐬고 이불을덥고 신문을보고잇든중 장지를곱게열고 사람이 드러오는인긔가잇섯스나

집안사람의출입으로만 알고여전히 신문을 보고잇는데 억개넘어로부터 정신을 쓰고머리를 숙이라함으로 돌려보니 복면한 단도를든사람이 셋임으로 그제야 강도인줄을 알앗스나 엇절수업시 무서움을 견데지못하야 하라는대로굴복하매 그자는동이든 두명과 함의달려들어잔득 결박을지은후 이불로머리를덥고 돈잇는데와 쇠스대를 쌔아서서 권긔금액을 강탈한후 다시주인 안해에게 또돈잇는곳을가르치라고 힐난을하다가 노혀든금시계 한개만집어 가지고밧그로나가서

이웃집에 가서문을열라고 고소리를 질으다가 작대이로 문을부시고 드러가서 일장활극을이르키매 자연요란하야 이웃집까지알게되여 필경 사냥총을가지고나가서 헛총을 한방노흐매 그자들은 그만어데로 종적을감초와 바렷다는데 이급보를친 청주서에서는 급급히 비상소집을하야 덩동가튼 경계망을버리고수색대를 난호아 범인데포에 노력중이나 아즉까지 종적을모른다더라(청주)

東興校에寄附
김씨원녀사열성

평양부리향리이십사번디(平壤府履鄕里二四) 김씨원(金氏元)(六六)녀사는 지난 십륙일간도 동흥중학교(間島東興中學校)에 금이천원을 긔부하엿다는데 원래녀사는 삼십팔세되든해 과부가되야 이래 삼십여년동안에 갓가지로 고생을다해가면서 오죽근검과 저축으로모은 재산이 여러만원에 달하엿는바 자선심이만흔녀사는 의지할곳업시 도로에 방황하는불상한 고아들을 위하야 설립된평양고아원(平壤孤兒院)에일만이천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긔부한후 지금까지 도고아원장(孤兒院長)의책임을 가지고 재단법인긔성에 진력을 하여오든중 금번또이와가티 동흥중학교에 긔부함에대하야 일반 사회의 칭송이자자 하다더라(평양)

(사진은김씨원녀사)

讀經하다狂女死亡
·복사나무채직으로무수란타 마진녀데병자는참혹히죽어

진남포(鎭南浦)부 비석리(碑石里)이백사십삼번디 김항락(金恒樂)의장녀 김련숙(金蓮淑)(二三)이란 철은녀자는 지난 일월 이십일경부터 별안간발광병(發狂病)이 들어 신음하여오든바미신에 커진그부모와 친척들은 그릇독갑이 들렷다하야곳 그동리에사는 로상섭(盧相燮)(十七)이란 장님을 청하여다가복사나무 채직으로 두다리고머리와손가락은물론 등과무릅에까지 뜸을뜨든바지난달이십팔일에이르러마츰내 무참히 죽엇다더라

시테를해부검안 墳墓를發掘하고

정신병을 고치노라고 경을읽다 가련약한병자가복숭아나무채직에마저 무참히죽엇다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 이사건을탐문한진남포지청 검사분국(鎭南浦支廳檢事分局)에서는 고천(古川)검사머리가 남포서(南浦署) 삼산(森山)부장이 하두세명과 내뎐(內田)의사를 대동하고지난십오일오후 두시에 류사리(柳砂里)공동묘디에 이르러전긔 김련숙(金蓮淑)의 무덤을파고 시톄를 해부(解剖)한후 죽은 원인을 됴사하엿다더라

屍體에는傷處 죽은원인은미상

시톄를 검안하려갓든 내뎐(內田)의사는 말하되『시톄에상처는 퍽만엇슴니다 머리에는머리쌔가드러나도록흠을엿고그밧게 등과 무릅은물론 손가락에까지 뜸을떠서 쌔가드러나 잇섯슴니다 그러고권신에는 푸릇푸릇한 반점이잇서서 권신에 상처투성이엇슴니다그러나복부(腹部)와 뇌수(腦髓)에는별다른이상이 업섯스닛가 외부에 나타난상처만을직접사인(直接死因)이라고하기는 좀어렵슴니다 하여간이번 사건은 본시정신병으로 몸이쇠약한데다가 복숭아 채직으로 따리고 게다가뜸까지 떳스닛가간접사인(間接死因)이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도복잡하닛가 여러가지 일을잘종합하여서 완전한 감뎡서는 이삼일후에야 작성하겟슴니다』하더라(진남포)

沒人情한醫生
현금이아니면 절대로못된다

강화군소해면 하도리(江華郡松海面下道里)에사는 김흥수(金興守)는 당년칠십여세에 혈혈단신 아들 관식(寬植)(三八)과 두리서 신발장사를하야 간신이 연명하야가든터에 전긔 아들관식이가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에 우연히 병이낫스나 원래생활이 곤난하든터이라 고처볼길이 업는것은 물론이오 먹을것조차 업서서결국죽고 마랏다는데 이것을매장함에는의사의 사망진단서가 필요하야 의생 남궁작(南宮?)에게 사례금은 후일줄터이니 진단서를 하야달라고 애걸하얏스나 전긔의생은 말하되 현금이아니면 절대로 할수업다 고단연이 거절함으로 잔득밋고갓든 전긔로인은 다른도리가 업슴으로 할수업시 그대로도라와서 죽은아들을 붓들고사흘동안이나 울기만한다는것을 동면 사무소에서 알고곳 경찰서에 교섭하야 매장하얏다는데 전긔 의생남궁작은 본래부터 자비심이업는 자이라는데 이말을들은 일반은 그의몰인정함을 비난한다더라(강화)

盈德에紳士賭博
모다벌금이십원에

경북영덕읍내(慶北盈德邑內)에는 요사이에 도박이성행한다는데 사오일전에 소위신사、부호、공리(公吏)가 모히여 화투하고 잇는것을 검거하야 각각벌금이십원에 처하엿다는데 그자들은 심심하면 모히여화투를일삼는자로서 벌금을내인자는 리일우(李一雨)정례술(鄭禮述)리춘석(李春錫)삼인이라하며한명은 도망하야 상금데포치 못하엿다더라(대구)

낫도열두시 밤도열두시 ◇일년중오늘뿐◇

금십팔일경오는낫과밤의 사이가똑가튼날로이언덕(岸)에서저언덕으로기운다는피안(彼岸)날이다이날은저울동안그러케길든 밤이나와돈낫도모다열두시간식이며이날정오부터 낫이기러가고밤은짧아간다

下關에警官增置
서백리렬도련락부활로 외인래왕이만흘터라고

산구현(山口縣)경찰부고등과 하관역파출소(下關驛派出所)에는 현재서원과 통역생을합하야 이십팔명을 두어서 하관을통과하는 내외인에대한 고등사무를 맛게하엿든바 근래 서백리아선(西伯利亞線)으로서 구아련락(歐亞連絡)이 부활되면 내외인의왕래가 일층만허지는동시에 현재인원으로는 취톄키 곤난할터임으로 십명을증원하여야 되겟다고 주무성(主務省)에 신청중인대 그로인하야 십륙일경보국(警保局)으로부터 과장(課長)과 내선계(內鮮係)원등이 도사무사왓다더라(하관뎐보)

殘忍한東拓會社
소작권쌔앗긴십여명의운명

전남해남군 해남면신안리(全南海南郡海南面新安里)천인섭(千仁燮)은자긔에게 토디는 별로업고 다못 동척회사(東拓會社)의 ㅡ두락과 밧십오두락에다 십여명의가족의 명맥을걸고 우금팔년간을근근히 생활을하여오든중 금년은 돌연히소작디 전부를 그마을 윤광오(尹光五) 외두사람에게 주엇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듯건대 소작답ㅡ두락에소작료 륙석삼두오승을 달라함으로 금년가튼 한재에전수확도그러케 되지못하니 다소감하여달라고 동회사사무원에게 애걸을 하엿스나 종시듯지 아니하고 분속을하기로 결뎡하고 삼석칠두오승을 가져갓는데 또다시근본뎡한 소작료를 달라하매천인섭은너무나 무리함을 당디경찰서에 말하엿더니 자긔네의요구에거절한다고 이러케 무리한행동을하엿다는바 이로인하야 천씨의일가족은 비참한 디경에이르럿다는데 이말을드른 일반은동척의 횡포를 비난한다더라(해남)

舍音의罪惡을
디주에게단원

전남해남군 화산면방축리(全南海南郡花山面方丑里)김농연(金龍淵)은 디주목포부(木浦府)산야뭇산(山野瀧三)의사음(舍音)을수년전부터 하여오든중 일반소작인에게 여러가지 불평으로원성이 비등하든중 방축리외사동리의소작인 칠십여명은 사음김농연의 죄악을드러 디주산야에게 탄원서를데출하기로 결뎡하고목하준비중이라더라(해남)

大成學館擴張 대구

대구대성학관(大邱大成學館)에서는 이래초등과(初等科)만두엇던바금춘신학긔에 동학관을 확장하고고등과(高等科)를증설한후각방면으로 학생을모집한다는데 뎡원은 고등과에칠십명 초등과에 백명이라더라(대구)

釣名하는假有志에게
안주청년회에서지불명령

안주성내(安州城內)에잇는 안주청년회(安州青年會)는긔미년이후의 긴장한긔운(機運)에 뛰리듯바고서 대정구년과 그이듬해에 여러청년과 유지들의발긔하에 조직되어

세상사람의이목을놀래일형세로써 잘아남을따라 동회에서는 급히회관을 설립하지아니하면 안될필요를늣긴바 과부를청하야 동회의회관을 건축키로하고 노력하엿는데 그때에는 만흔 기부가잇서서 예뎡대로회관을건축 할수잇는 커디이엇슴으로 위선회관건축에 착수하고 현금부족되는바를 권처 긔부하마고승락한 액수만 밋고서모자라는액수를 안릉조합(安陵組合)에서사백원중개조합(仲介組合)에서일백이십원을 대용보충하야 동회관은 락성하엿던바 당시에는 무슨뜻으로 일홈만조케 긔부에 얼마식을 허해노코서 그다음 동회가엇지엇지됨을 따라서 허락된 액수를

내지안코 우금오륙년이 되도록 잠잠히잇서서 할수업시 동회관을앳버 세웟슴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팔자는등모모단톄에게 세를노차는등 실로량심잇는 회원으로서는 한줄기뜨거운눈물을 먹음지안흘수 업는가 궁한 커디에 빠졋스나긔부허락한 모모인들은 모른듯 친족중참내일만한 형편이쾌히 잇스면서도 내지아니함으로 그회도

의원회에서는동회의유지와 명예를위하야 또는원흥만낙그는 소위유지들을 징계하기 위하야 전긔긔부허락한 인사중에서범히 돈내일수잇는 멋멋인사에게 긔부금의 지불명령을 송하기로 예의가결하엿다는바 아마도 이런일이 잇는것은원흥만 낙기조하하는 사람들에게는 청텬의 벽력가튼 통래임을주리라더라(안주)

重大犯被疑者 神道教主
호송하자마자 신병으로죽어

경성부충신동(忠信洞)일백팔십번디 신도교주(神道教主)류지혁(劉智赫)(六六)은일련모중대사건긔 피의자로 경성동대문경찰서에데포되야 평북태천(泰川)경찰서로 압송하는길에 지난십오일오후오시반평양경찰서에서 전긔류지혁을 인수할때에는 몸이편치안타하며 또한 신열이잇슴으로 경찰의에게 진찰한즉감긔의증세가잇다하는바그후두시간이지나서는 경과가 몹변하야 급성폐염(急性肺炎)을 병발하야 자못위독한상태에잇슴으로평양경찰서에서는 크게당패하야 동대문경찰서에와태천경찰서에 통지하야십변신도교평양지부에 통지하고십륙일오전오시에 본인을 동지부총무김용무(金用務)에게인도하엿는데 동륙시경에 마츰내사망하엿다더라(평양)

休紙로毛物을買收
협잡군다섯명은서대문서에잡혀

경북례천군 례천면우계리(醴泉郡醴泉面愚溪里)사백칠번디 김성렬(金聖烈)(三〇)은얼마전에모물(毛物)수백원어치를해가지고 상경하야 시내남미창뎡(南米倉町)팔십사번디 리봉춘(李逢春)의집에 류숙하고잇던바 전남고창군고창면(高敞郡高敞面)에원적을두고 일뎡한주소가 업시도라다니는안경로(安京老)(四四)외사명이공모하고몃칠전에김성렬을차저가서물건을 살사람이잇스니가지고가자고 꾀여가지고가회동(嘉會洞)모음식뎜에이르러술을 먹으면서 물건의시가를의론하다가 가한후 도라가려할때 조고마한손가방한개를 김성렬에게 내여주면서 이것은 돈가방이니당신이 들고가자고하고 물건은 자긔들이가지고 갈거리로나와서는 하나식둘식 그만아조형적을감추어 버렷슴으로 김성렬은 웬일인가하야 즉시 가방을조사하여보매 돈은고사하고 헌신문지쪽을 묵거너헛슴으로 그길로 곳소관경찰서에 고발하야 각서에서 범인을엄탐중이던바 십륙일에 전긔안경로외이명이 서대문서에 검거되여 방금취됴중인데 그자들은 이번만이아니고 전후수십회를 그러케 헌신문지를 리용하야 시골사람을속여 수천

少年少女大會
『어린이』사주최로

『어린이』사에서는창간이주년긔념으로다음과가튼일뎡으로각디방에서 소년소녀대회를 연다하며 자세한것은 림시발표한다하며 이밧게도계속하야 사오량삭에도 각디에서 대회를연다더라

▲京城 三月廿一日 天道教紀念館▲大邱 同廿二日▲馬山 同廿四日▲釜山 同廿六日▲仁川 同三十日

自殺者는師範校生

지난십이일에 부천군계남면 고척리(富川郡桂南面高尺里)산중에서 경성청년회학관(京城青年會學館)모표를부친 학생한명이 소나무에 목을매여죽엇다 함은 이미보도 하엿거니와 그후인천서(仁川署)에서경긔도사범학교(京畿道師範學校)에 조회한결과 그학생은 본뎍을 경성부평동(京城府平洞)쉰이번디에 두고 현주는 옥천동(玉川洞) 구십삼번디리선구(李宣求)의장남린복(麟馥)(一九)인데지난번제일차시험에락제한사실로보아염세자살임은 분명하다더라(인천)

養母를虐待한者
필경은파양소송을당하여

전남보성군 벌교면뎐동리(寶城郡筏橋面典洞里) 백칠번디남홍순(南興順)(五?)은그의양자인윤홍구(尹洪九)(三〇)를상대자로하야 양자이연(養子離緣)청구사건으로 광주(光州)디방법원에 소송을데긔한다는데 그내용을듯건대 전긔남홍순의 남편되는 윤영래(尹榮台)가 여러해동안신병으로 신음하다가 대정십년륙월십사일에 불행히 이세상을떠나게되얏다 윤영래는 생전에아들이업고 다만딸만 삼형데를두엇슴으로

림종시에 친족일동을한자리에 회합하고 자긔사후의모든일을 유언하며 양자는그의백형의둘人재아들정수(正洙)(一六)로 뎡하야 가독과유산을상속케하라하엿는데 급기사망후에 이미뎡한양자정수로 발상케 할터인데 하로를지내도록 아모동정이업다가 윤영래의 중형의둘人재아들되는 전긔홍구형데가 돌연히나타나서 홍구로양자를 뎡하겟다하며 만일 불응하는경우에는 송장이집에서 썩더라도치상을하지안켓다고강경히주장하매

남홍순은 약한녀자의 몸이라 불의에남편의 초상을당하야 망지소조로 정신이업섯고 정수의모자도 역시 고아과부로아모권세를 모르는중 친족중참청한남자로는 다만 홍구형데뿐임으로 그위협에눌리여 감히반대치못하고 부득이 홍구로써 양자라하야 치상을 하게되얏섯다 그러나 아모리영래의 생전에 유언으로뎡한 양자는 아닐지라

삼년상을 지내게하엿스나 전긔홍구는 다만양자라는 명의와 상제라는형식을띄이요 한집에동거치도안코 삼년간 삭망차례와 소대상제사를 지내어도다만푼감「柿」한개명태한쇠리라도 제수에 보조하는일이업고 일면으로『모루히네』에중독되여 유산을탕진하더니 대정십이년 십월 십오일에 비로소 입가(入家)함으로 양모양자라는 구도덕에 구애되어 울며겨자먹기로 불가불 홍구와한집에동거케 되엿스나홍구의 불효한행동도 참을수업슬뿐아니라 소위며누리 되는 박복심(朴卜心)(三〇)의

무례불칙한행위는아모리효의로 보라하야도 도뎌히참을수업스나 시어미된도리로 참아가며 그럭저럭일년을 지내엇는데 작년십이월사일에 불의에 그부부가 아모말업시 슬그머니나가서 이웃에서따로살더니 그후 십이월칠일밤에 홍구의 부부는 돌연히 문을차고 구두신은채방으로드러와 화로와 요강등을내던지며 뮤래(親族)들에게 티하는 시고 양모를구타할드시 압흐로달려드러

요령부득한말로행악을 하여 일대활극을 이루든중동리 사람들의구원을입어 다행히 무사하얏스나 그와가튼 멸륜패상한자는 그대로 용서할수업다고 일반의비난이 만햇섯다 그리하야 남홍순은 양모이니 양자이니 하는 명의를두고 생전에 고통을밧는것보다 차라리 파양을하고서로 관계를끈는것이 온당하겟다생각하고 부득이소송을 이르킨것이라더라(보성)

議場闖入事件
십륙일에판결

일본의 데사십팔의회(第四十八議會)의 해산동긔(解散動機)를 일우운 의장틈입사건(議場闖入事件)의판결이 십칠일에언도되엿는데 목도(木島) 토창(土倉)두명은 징역일년이오 송원(松原)도강(島岡)산중(山中)등 세명은 각각징역륙개월이오 대야(大野)는 무죄가되엿다한다(동경뎐보)

貨車內에小火
손해는적다

십오일 오전일곱시에 대구(大邱)에서떠나포항(浦項)으로가는렬차가 동촌(東村)역 부근에 일으럿슬때에 우편차실(郵便車室)에서불이나서 그속에잇든우편행랑(郵便行囊)일곱개중에서 통상우편(通常郵便)행랑 한개와소포우편 행랑두개가 약간손상하엿는데 그원인은 소포속에잇든물건이 불나기쉬운 물건이잇섯슴으로그가티불이일어난것인듯십다한다

선술집에小火 작야열시경에

십칠일밤 구시오십분경에 시내락원동(樂園洞)이십이번디박창근(朴昌根)의 선술집 연돌에서불이흘러나와서즉시진화하엿는데 손해는별로업다더라

휘파람

▲경성뎐긔회사의승무원은회사와경찰의 고압으로원만한품고파업을하고말앗는데십칠일에이르러그회사 산원(山元)서무과장은동대문경찰서에와서『퇴직당한 승무원중에서 협박장이왓스니 사실을 됴사하여달라』고하엿다한다 ▲저는 뒤테 엇던승무원이 이러한일을하엿슬는지도모르지만은여간괘씸한문자가쓰여잇다고、이것을곳『협박장』으로본것부터경솔한 일이오、이것을가지고경찰서로 쪼차가는것은 더욱히 우수운일 ▲경찰서에서는 이협박장 보낸범인을 엄탐중이라고、잡히면 또가련한 연극의한막을 이루겟지!

◇取消申請 三月十二日貴社發行朝鮮日報第一千六百四十五號十一日夕刊第二面十段勞働組員放免이라題한記事中『八日夕刊張龍玉外十二名은 放免되얏스나其中에幾人은警察署의酷毒한拷問으로팔이부은者도잇고 甚히치워서발이얼은사람도잇다云』의新義州通信은事實全然無根일뿐아니라該記事를揭載함은甚히遺憾으로생각함으로써取消하기를바람

大正十四年三月十四日

新義州警察署 朝鮮日報社貴中

連理枝 (43)
소요산인

폭풍의전조

커편수풀미테다 불을 피우고 여러사람들이 모여 잇섯는고로 우리는 그엽흐로가서 그사람들과가티 낫이새기를 기다리기로 하엿다 불을쬐고잇노라닛가 그사람들중의 한사람이 이약이를시작하엿다 『나는오늘저녁에 배한척이 조수에 밀려들어오는것을보앗는데 해가진뒤에는 그배의간곳을 몰랏더니 두어시간이 나지난뒤에 위험하다는 신호가 들리여서 그러치만물결이 사나워서 어지할수가 잇서야지 그대로 발여두고 잇노라니 얼마후에무슨등불가튼것이 번적번적하엿는데 그것이만일배에 켠불가트면배가 해안으로 너무다어들어서 『암부라』섬 사이로나 들어가지안엇는지 매우념려되는걸 만일그러로보면 뎡말위험한데』라고말하엿다

엽헤서 또한사람이 말하엿다 『나는『암부라』섬과 이해안새이를각금지나단이며 수심을 측량하여보앗는데 닷을주기에는 아조훌륭한데야 거긔갓고보면 엇던배던지 항구에다은 이상으로 안전하지』그리고또말을 이어서『나는거긔가르면 천량을실고가살어도 못헤잇는셈치고 맘노코자겟네』라고 말하엿다

한쪽 또한사람이 내달으며 『그배는 그사이로 들어가지못하네 외대박이 결우라도간신히 들어갈지말지한데 그큰배가 어림잇나 나는그배가암부라섬 저편에 닷주고 서잇는것을 보앗스닛가 아츰에바람만나면 밧그로나서던지 안으로 들어오던지 맘대로할수잇겟지』라고하엿다 그런즉 또엽헤서 달은사람이 튀여나서 제각가의 의견을발하엿다

그네들이 이모양으로 열심으로토론을하고 잇는동안에 우리는말업시 안저잇섯다 말업시 안진자리에 안저서 밤을새엿다 하늘은 캄캄하고 바다에는안개가자욱함으로 바다우에는 아모것도 보이는것이업섯다 다만바다우에멀리 컴컴한 구름이덥혀 잇는것을 볼뿐이엇다 그런대 그구름이라고 생각하엿던것은 남에게 물어본즉 이해안에서 네시간길쯤되는 곳에잇는『암부라』섬이엇다 이컴컴한 날에는 우리가서잇는 해안의 일부분과 등뒤에 놉허서잇는 산봉오리가 구름사이로 약간 내다보일뿐이엇다

아츰 일곱시경에 삼림속에서 북소리가 들렷다 그는지사의 『부르도네』씨가 오는것이엇다 지사는 말을타고 총을가진병정들과 섬안에사는 불국인과흑인들을 만히달이고 왓다그래서 병뎡들을 바다가에 늘어세우고 우리는 그불빗을보고 배가그리 멀지아니한곳에잇는줄을 짐작하엿다 그래서신호가 보이던 방향을하고 달려갓다 그러노라니 자욱한안개속에 크다란 배 돗대가 보엿다 물결소리는놉헛스나 거리가 썩갓가운고로우리는 배에서울리는 경덕소리와 사원들의 부르는 만세소리를들을수가잇섯다 이만세소리는 불란서 사람에게는 비상히깃분써에 부르는소리이며 또비상히위험한써에도 부르는소리이다 그는마치 그들이 군주에게구원을청하는 의미도되며 또군주를위하야 죽엄을각오하엿다는 것을 복주하는 의미도 되는것이엇다

우리들이 구조하라 갈수가잇도록 갓가운곳에잇는것을 『산제란』호가알게되엿써로부터삼분간마다 대포를울렷다 『부르도네』씨는해안에다가일뎡한시간을따추어 불을피우고 근처각촌락으로부터 량식과 널쪽과동아줄과 빈통을가저오게 하엿다 얼마아니되어 섬사람들은 흑인들을닷이고 식량과 동아줄을가지고 『푸록도올』과『추락』이란촌락과 『람딸』 하부근의농장으로부터모여들엇다 그중의 나만은사람하나가 지사의압흐로나가서 말하엿다

『각하 간밤에는밤새도록산중에서 무슨소리가 들렷슴니다바람도 업는데 숩속에서는나무닙이울엇슴니다 이러한원은 다피하여왓슴니다 물새들은 못호로 몰려왓슴니다』

『제군 우리는폭풍우마질준비를 하는것이요 배에서도 그러켓지요』지사는이와가티말하엿다